주역_아트앤스터디2014_제5강

전호근(경희대교수)

군자의 덕은 어두운 것 같지만 날로 드러난다

1. 가장 높은 덕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 겸(謙), 예(豫)

겸(謙)䷎

겸괘(謙卦)는 〈서괘전(序卦傳)〉에 "큰 것을 소유한 자는 가득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겸괘(謙卦)로 받았다." 하였다. 소유함이 이미 성대하면 영만(盈滿)함에 이르러서는 안되고, 반드시 겸손(謙損)한 데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유괘(大有卦)의 뒤에 겸괘(謙卦)로 받은 것이다. 괘(卦)됨이 곤(坤)이 위에 있고 간(艮)이 아래에 있으니, 땅 가운데 산(山)이 있는 것이다. 땅의 체(體)는 비하(卑下)하니, 산(山)은 고대(高大)한 물건인데 땅의 아래에 있음은 겸(謙)의 상(象)이요, 숭고한 덕(德)으로 낮은 곳의 아래에 처함은 겸(謙)의 뜻이다.

謙은 亨하니 君子有終이니라

겸(謙)은 형통(亨通)하니, 군자(君子)는 끝마침[끝까지 지킴]이 있다.

彖曰 謙亨은 天道下(濟)[際]而光明하고 地道卑而上行이라 天道는 虧盈而益謙하고 地道는 變盈而流謙하고 鬼神은 害盈而福謙하고 人道는 惡(오)盈而好謙하나니 謙은 尊而光하고 卑而不可踰니 君子之終也라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겸형(謙亨)'은 천도(天道)는 아래로 교제(交際)하여 광명(光明)하고, 지도(地道)는 낮아 위로 행한다. 하늘의 도(道)는 가득찬 것을 이지러지게 하고 겸손(謙巽)한 것을 더해주며, 땅의 도(道)는 가득찬 것을 변하게 하고 겸손(謙巽)한 데로 흐르며, 귀신(鬼神)은 가득찬 것을 해치고 겸손(謙巽)한 것에 복을 주고, 사람의 도(道)는 가득찬 것을 싫어하고 겸손(謙巽)한 것을 좋아하니, 겸(謙)은 높고 빛나며 낮되 넘을 수가 없으니, 군자(君子)의 끝마침이다."

象曰 地中有山이 謙이니 君子以하여 裒多益寡하여 稱物平施하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땅 가운데 산(山)이 있는 것이 겸(謙)이니, 군자(君子)가 보고서 많은 데에서 취하여 적은 데에 더해 주어 물건을 저울질하여 베풂을 공평하게 한다."

初六은 謙謙君子니 用涉大川이라도 吉하니라

초육(初六)은 겸손(謙巽)하고 겸손(謙巽)한 군자(君子)이니, 대천(大川)을 건너더라도 길

(吉)하다.

象曰 謙謙君子는 卑以自牧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겸겸군자(謙謙君子)’는 낮춤으로 자처하는 것이다.”

六二는 鳴謙이니 貞하고 吉하니라

육이(六二)는 겸손(謙巽)함을 울림이니, 정(貞)하고 길(吉)하다.

象曰 鳴謙貞吉은 中心得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명겸정길(鳴謙貞吉)’은 중심(中心)에 얻은 것이다.”

九三은 勞謙이니 君子有終이니 吉하니라

구삼(九三)은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함이니, 군자(君子)가 끝마침을 두어야 하니 길(吉)하다.

象曰 勞謙君子는 萬民이 服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노겸군자(勞謙君子)’는 만민(萬民)이 복종한다.”

六四는 无不利나 撝謙이니라

육사(六四)는 이롭지 않음이 없으나 겸손함을 발휘하여야 한다.

象曰 无不利撝謙은 不違則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무불리휘겸(无不利撝謙)’은 법칙(法則)을 어기지 않은 것이다.”

六五는 不富以其隣이니 利用侵伐이니 无不利하리라

육오(六五)는 부유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을 얻으니, 침벌(侵伐)함이 이로우니,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象曰 利用侵伐은 征不服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침벌(侵伐)함이 이로움은 복종하지 않는 자를 정벌하는 것이다.”

上六은 鳴謙이니 利用行師나 征邑國이니라

상육(上六)은 겸손함이 알려짐이니, 군대를 출동함이 이로우나 읍국(邑國)을 정벌하여야 한다.

象曰 鳴謙은 志未得也니 可用行師나 征邑國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명겸(鳴謙)’은 뜻을 얻지 못함이니, 군대를 출동하나 읍국(邑國)을 정벌하여야 한다.”

예(豫)䷏

예괘(豫卦)는 〈서괘전(序卦傳)〉에 “큰 것을 소유하고도 겸손하면 반드시 즐겁다. 그러므로 예괘(豫卦)로 받았다.” 하였으니, 대유(大有)와 겸(謙) 두 괘(卦)의 뜻을 이어 차례를 삼은 것이다. 소유한 것이 이미 큰데도 겸손하면 즐거움이 있으니, 예(豫)는 안화열락(安和悅樂)의 뜻이다. 괘(卦)됨이 진(震)이 위에 있고 곤(坤)이 아래에 있어서 순(順)하게 동하는 상(象)이니, 동하면서 화순(和順)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구사(九四)는 동(動)의 주체가 되어 상하(上下)의 여러 음(陰)이 함께 응(應)하고 곤(坤)이 또 순함으로써 받드니, 이는 동함에 상하(上下)가 순히 응(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예(和豫)의 뜻이 된 것이다. 두 상(象)으로 말하면 우레가 지상(地上)으로 나오니, 양(陽)이 처음에 지중(地中)에 잠기고 갇혀 있다가 동하여 땅을 나옴에 미쳐서는 그 소리를 분발(奮發)하여 통창(通暢)하고 화예(和豫)하다. 그러므로 예(豫)라 한 것이다.

豫는 利建侯行師하니라

예(豫)는 후(侯)를 세우고 군대를 출동함이 이롭다.

彖曰 豫는 剛應而志行하고 順以動이 豫라 豫順以動이라 故로 天地도 如之온 而況建侯行師乎아 天地以順動이라 故로 日月不過而四時不忒하고 聖人이 以順動이라 則刑罰清而民服하나니 豫之時義大矣哉라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예(豫)는 강(剛)이 응(應)하여 뜻이 행해지고, 순함으로 동함이 예(豫)이다. 예(豫)는 순하고 동한다. 그러므로 천지(天地)도 똑같이 하는데 하물며 후(侯)를 세우고 군대를 출동함에 있어서랴. 천지(天地)가 순함으로 동하기 때문에 일월(日月)이 틀리지 않아 사시(四時)가 어그러지지 않고, 성인(聖人)이 순함으로 동하기 때문에 형벌(刑罰)이 맑아져서 백성(百姓)들이 복종하니, 예(豫)의 때와 의(義)가 크다.”

象曰 雷出地奮이 豫니 先王이 以하여 作樂崇德하여 殷薦之上帝하여 以配祖考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우레가 땅에서 나와 분발함이 예(豫)이니, 선왕(先王)이 보고서 악(樂)을 지어 덕(德)을 높여서 성대하게 상제(上帝)께 올려 조고(祖考)로 배향(配享)하였다.”

初六은 鳴豫니 凶하니라

초육(初六)은 즐거움을 울림이니, 흉하다.

象曰 初六鳴豫는 志窮하여 凶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초육명예(初六鳴豫)'는 뜻이 궁극하여 흉한 것이다."

六二는 介于石이라 不終日이니 貞하고 吉하니라

육이(六二)는 절개가 돌과 같아 하루를 마치지 않고 떠나가니, 정(貞)하고 길(吉)하다.

象曰 不終日貞吉은 以中正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부종일정길(不終日貞吉)'은 중정(中正)하기 때문이다."

六三은 盱豫라 悔니 遲하면 有悔리라

육삼(六三)은 올려 보고 기뻐하므로 뉘우칠 것이니, 뉘우치기를 더디하면 후회가 있으리라.

象曰 盱豫有悔는 位不當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우예유회(盱豫有悔)'는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九四는 由豫라 大有得이니 勿疑면 朋이 盍簪하리라

구사(九四)는 말미암아 즐거워하므로 크게 얻음이 있으니, 의심하지 않으면 벗들이 모여들리라.

象曰 由豫大有得은 志大行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유예대유득(由豫大有得)'은 뜻이 크게 행해지는 것이다."

六五는 貞疾이나 恒不死로다

육오(六五)는 정(貞)한 병이나 항상 앓고 죽지 않도다.

象曰 六五貞疾은 乘剛也요 恒不死는 中未亡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육오정질(六五貞疾)'은 강(剛)을 탔기 때문이고, 항상 앓고 죽지 않음은 중(中)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上六은 冥豫라 成하나 有渝니 无咎리라

상육(上六)은 즐거움에 빠져 어두우므로 이루어졌으나 변함이 있을 것이니, 허물이 없으리라.

象曰 冥豫在上이어니 何可長也리오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즐거움에 빠져 어두우면서 위에 있으니, 어찌 장구(長久)하겠는가."

2. 절망에서 희망을 본다 - 박(剝), 복(復)

박(剝) ䷖

박괘(剝卦)는 〈서괘전(序卦傳)〉에 "비(賁)는 꾸밈이니, 꾸밈을 지극히 한 뒤에 형통(亨通)하면 다한다. 그러므로 박괘(剝卦)로 받았다." 하였다. 사물이 문식(文飾)에 이르면 형통(亨通)함이 지극한 것이니, 지극하면 반드시 뒤집어지므로[되돌아가므로] 비(賁)가 끝나면 박(剝)이 되는 것이다. 괘(卦)가 다섯 음(陰)에 한 양(陽)이 있고, 음(陰)이 처음 아래로부터 생겨서 점점 자라 성극(盛極)함에 이르러서 여러 음(陰)이 양(陽)을 소박(消剝)[사라짐]하게 한다. 그러므로 박(剝)이라 한 것이다. 두 체(體)로 말하면 산(山)이 땅 [지(地)] 에 붙어 있으니, 산(山)은 땅 위에 높이 솟아 있는 것인데 도리어 땅에 붙어 있으니, 퇴박(頹剝)[무너짐]하는 상(象)이다.

剝은 不利有攸往하니라

박(剝)은 가는 바를 둠이 이롭지 않다.

彖曰 剝은 剝也니 柔變剛也니 不利有攸往은 小人이 長也일새라 順而止之는 觀象也니 君子尙消息盈虛 天行也라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박(剝)은 박락(剝落)이니, 유(柔)가 강(剛)을 변화시킨 것이니, 가는 바를 둠이 이롭지 않음은 소인(小人)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순히 하여 멈춤은 상(象)을 보고서 하는 것이니, 군자(君子)가 소식(消息)과 영허(盈虛)를 숭상함이 천행(天行)[천도(天道)]이다."

象曰 山附於地剝이니 上이 以하여 厚下하여 安宅하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산(山)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박(剝)이니, 윗사람이 보고서 아래를 후(厚)하게 하여 집을 편안히 한다."

初六은 剝牀以足이니 蔑貞이면 凶하리라

초육(初六)은 상(牀)을 깎되 상의 발을 함이니, 정도(貞道)를 멸하면 흉하리라.

象曰 剝牀以足은 以滅下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박상이족(剝牀以足)'은 아래에서 〈양(陽)을〉 멸하는 것이다."

六二는 剝牀以辨이니 蔑貞이면 凶도다

육이(六二)는 상(牀)을 깎되 변(辨)[상(牀)에 가로댄 나무]에 이름이니, 정도(正道)를 멸

(蔑)하면 흉하도다.

象曰 剝牀以辨은 未有與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박상이변(剝牀以辨)'은 응여(應與)가 없기 때문이다."

六三은 剝之无咎니라

육삼(六三)은 박(剝)의 때에 허물이 없다.

象曰 剝之无咎는 失上下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박지무구(剝之无咎)'는 상하(上下)의 여러 음(陰)과 잃기 때문이다."

六四는 剝牀以膚니 凶하니라

육사(六四)는 상(牀)을 깎아 살갗에 미침이니, 흉하다.

象曰 剝牀以膚는 切近災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박상이부(剝牀以膚)'는 재앙에 매우 가까운 것이다."

六五는 貫魚하여 以宮人寵이니 无不利리라

육오(六五)는 물고기를 꿰듯이 하여 궁인(宮人)의 총애로써 함이니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象曰 以宮人寵이면 終无尤也리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궁인(宮人)이 총애를 받듯이 하면 끝내 허물이 없으리라."

上九는 碩果不食이니 君子는 得輿하고 小人은 剝廬리라

상구(上九)는 큰 과일이 먹히지 않음이니, 군자(君子)는 수레를 얻고 소인(小人)은 집을 허물리라.

象曰 君子得輿는 民所載也요 小人剝廬는 終不可用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군자(君子)가 수레를 얻음은 백성에게 실려지는 바이며, 소인(小人)이 집을 허무는 것은 끝내 쓸 수 없는 것이다."

복(復)䷗

복괘(復卦)는 〈서괘전(序卦傳)〉에 "물건은 끝내 다할 수 없으니, 박(剝)이 위에서 궁극하면 아래로 돌아오므로 복괘(復卦)로 받았다." 하였다. 물건은 박진(剝盡)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박(剝)이 지극하면 복(復)이 오고, 음(陰)이 지극하면 양(陽)이 생기니, 양(陽)의 소멸(消蔑)이 위에서 지극하여 다시 아래에서 생겨남은 위에서 지극함에 아래로 돌아옴이니, 복괘

(復卦)가 이 때문에 박괘(剝卦)의 다음이 된 것이다. 괘(卦)됨이 한 양(陽)이 다섯 음(陰)의 아래에서 생기니, 음(陰)이 지극함에 양(陽)이 회복한 것이다. 10월에 음(陰)의 성함이 이미 지극하였다가 동지(冬至)가 되면 한 양(陽)이 다시 땅 속에서 생기므로 복(復)이라 한 것이다. 양(陽)은 군자(君子)의 도(道)이니, 양(陽)의 사라짐이 지극하다가 다시 돌아옴은 군자(君子)의 도(道)가 사라짐이 지극하다가 다시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善)으로 돌아오는 뜻이 된다.

復은 亨하니 出入에 无疾하며 朋來에 无咎니라 反復其道하여 七日來復이요 利有攸往이니라

복(復)은 형통하니, 나가고 들어옴에 병이 없으며 벗이 옴에 허물이 없다. 그 도(道)를 반복하여 7일만에 와서 회복하고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

彖曰 復亨은 剛反이니 動而以順行이라 是以出入无疾朋來无咎니라 反復其道七日來復은 天行也요 利有攸往은 剛長也일새니 復에 其見天地之心乎인저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복(復)이 형통함은 강(剛)이 돌아오기 때문이니, 동하여 순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출입무질붕래무구(出入无疾朋來无咎)'가 된 것이다. 그 도(道)를 반복하여 7일만에 와서 회복함은 하늘의 운행(運行)이요, 가는 바를 둠이 이로움은 강(剛)이 자라나기 때문이니, 복(復)에서 천지(天地)의 마음을 볼 수 있다."

象曰 雷在地中이 復이니 先王이 以하여 至日에 閉關하여 商旅不行하며 后不省方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우레가 땅 가운데 있음이 복(復)이니, 선왕(先王)이 보고서 동짓날에 관문(關門)을 닫아 장사꾼과 여행자가 다니지 못하게 하며 임금은 사방을 시찰하지 않는다."

初九는 不遠復이라 无祗悔니 元吉하니라

초구(初九)는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오는지라 뉘우침에 이름이 없으니, 크게 선(善)하여 길(吉)하다.

象曰 不遠之復은 以修身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옴은 이로써 몸을 닦는 것이다."

六二는 休復이니 吉하니라

육이(六二)는 아름다운 돌아옴이니, 길(吉)하다.

象曰 休復之吉은 以下仁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휴복(休復)의 길(吉)함은 인자(仁者)에게 낮추기 때문이다.”

六三은 頻復이니 厲하나 无咎리라

육삼(六三)은 돌아오기를 자주함이니,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으리라.

象曰 頻復之厲는 義无咎也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빈복(頻復)의 위태로움은 의(義)에 허물이 없다.”

六四는 中行하되 獨復이로다

육사(六四)는 음(陰) 가운데를 행하나 홀로 돌아오도다.

象曰 中行獨復은 以從道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중행독복(中行獨復)’은 도(道)를 따르기 때문이다.”

六五는 敦復이니 无悔하니라

육오(六五)는 돌아옴에 도타움이니, 뉘우침이 없다.

象曰 敦復无悔는 中以自考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돈복무회(敦復无悔)’는 중도(中道)로써 스스로 이룸이다.”

上六은 迷復이라 凶하니 有災眚하여 用行師면 終有大敗하여 以其國君凶하여 至于十年히 不克征하리라

상육(上六)은 돌아옴에 혼미하므로 흉하니, 재생(災眚)이 있어서 군(軍)을 동원하는 데에 쓰면 끝내 대패(大敗)가 있어 국군(國君)과 더불어 흉하여 10년에 이르도록 능히 가지 못하리라.

象曰 迷復之凶은 反君道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미복(迷復)의 흉함은 군주(君主)의 도(道)에 위반되기 때문이다.”